



**월드컵 놀이**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 월드컵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축구놀이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월드컵이 바꾼 생활 풍속도

밤샘 TV시청 '올빼미족' 감기 등 후유증  
길거리엔 붉은 셔츠·햇팬츠 월드컵 패션  
대학생들 단체응원 장소 '반짝 알바' 인기

2010 남아프리카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밤새 TV 중계화면을 지키는 '올빼미족'이 늘고 있다. 또 화려한 '응원 패션'으로 거리를 누비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등 월드컵 풍속도가 생활 속에 퍼지고 있다.

15일 월드컵 개막 5일째로 접어들면서 심야시간 경기를 시청하는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거나 때이른 감기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도 발생하고 있다.

월드컵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밤 8시30분과 11시, 이른날 새벽 3시30분에 잇따라 열려 새벽 경기까지 모두 지켜보는 축구 마니아들은 '올빼미시청'으로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전이 열린 날은 물론 타

국가들의 경기가 열리는 날에도 상당수 시청자들이 밤 경기와 새벽 경기를 잇따라 시청하는 경우가 많고, 응원하는 과정에 맥주나 야식을 즐기기 때문에 아침에 배탈이나 복통에 시달려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또 서너 시간이나 넘는 시청으로 인해 눈이 충혈되거나 다래끼 등 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몸살 또는 감기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응원 겸 한껏 맛을 낼 수 있는 응원 패션도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빨간색 셔츠와 햇팬츠·허리띠 가방·스카프 등을 포인트로 두고 다른 색상 의상을 조합하는 스타일이 기본이며, 어깨와 배를 드러낸 채 대극기로 가슴부위를 가린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도 있다.

월드컵 응원과 함께 아르바이트로 돈도 버는 대학생들은 한국전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과 그리스전의 응원 열기로 가득 찬 광주 월드컵경기장 입구에는 상당수 대학생들이 아이스크림·통닭·김밥·생수 등을 팔았다. '응원족'들을 겨냥해 야광팔찌·붉은악마 머리띠·붉은색 티셔츠 등의 응원 아이템을 파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월드컵에 맞춰 거리응원이 펼쳐지는 곳을 찾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것. 하루 평균 수입은 대략 13만~20만원. 대학생들의 다른 아르바이트(8시간)와 비교하면 일주일치를 하루에 버는 셈이다.

이날 응원장을 돌며 아이스크림을 팔던 김모(여·21)씨는 "의외로 반응이 좋은데다, 물건이 짧은 시간에 다 팔리기 때문에 월드컵 응원에도 나설 수 있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셈"이라고 즐거워 했다.

/이종현기자 gilee@kwangju.co.kr

## 광주·전남혈액원 직원들 경남서 단체 행사

### 평일에 헌혈의 집 문 닫아

광주·전남혈액원이 직원들의 체력 단련 행사를 위해 평일에 헌혈의 집을 문닫기로 해 반쪽을 사고 있다.

15일 헌혈자와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혈액원은 오는 22일 경남 거제에서 교육 및 체력단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직원 위로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말 혈액사업 평가를 통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1200만원이 경비로 쓰인다. 행사에는 혈액원 관계자 114명이 참여하며, 광주 4곳과 여수·목포·순천 등 7개 헌혈의 집은 이날 하루 문을 닫는다.

이에 대해 일부 헌혈자들은 생명과 직결된 헌혈 업무를 중단한 채 평일에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휴일에 가면 특근비 지급 등 복잡한 문제가 생겨 평일을 잡았다"며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은 남고, 헌혈자들에게는 공지해 불편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6·25 전후 영광·임실서 주민 243명 희생

### 진실화해위 밝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는 15일 한국전쟁 전후 시기인 1948~1951년 영광과 전북 임실에서 군·경의 수복작전과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주민 243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 영광경구에는 상당수 대학생들이 아이스크림·통닭·김밥·생수 등을 팔았다. '응원족'들을 겨냥해 야광팔찌·붉은악마 머리띠·붉은색 티셔츠 등의 응원 아이템을 파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월드컵에 맞춰 거리응원이 펼쳐지는 곳을 찾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것. 하루 평균 수입은 대략 13만~20만원. 대학생들의 다른 아르바이트(8시간)와 비교하면 일주일치를 하루에 버는 셈이다.

이날 응원장을 돌며 아이스크림을 팔던 김모(여·21)씨는 "의외로 반응이 좋은데다, 물건이 짧은 시간에 다 팔리기 때문에 월드컵 응원에도 나설 수 있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셈"이라고 즐거워 했다.

/이종현기자 gilee@kwangju.co.kr

## 대검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청구

대검찰청은 15일 '검사 스폰서' 파문 여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제법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진상규명 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한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과반 이상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황응·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비위 정도가 심한 6명이며, 단순히 황응 접대 회식에 참가한 나머지는 경징계 대상자 것으로 알려졌다.

/연협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9분

달돋이 09시 10분  
달질 22시 53분

**청명한 단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구분	구름조짐	기온
광주	구름조짐	19/31℃
목포	구름조짐	19/27℃
여수	구름조짐	20/27℃
완도	구름조짐	18/29℃
구례	구름조짐	19/32℃
애남	구름조짐	18/30℃
장흥	구름조짐	17/30℃
고흥	구름조짐	18/30℃
순천	구름조짐	20/30℃
영광	구름조짐	19/28℃
진도	구름조짐	17/29℃
전주	구름조짐	19/30℃
남원	구름조짐	18/30℃
목산도	구름조짐	17/23℃

구분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1.0	0	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0	0	0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17(목)	☀	19/31
18(금)	☁	21/28
19(토)	☁	21/27
20(일)	☁	21/28
21(월)	☀	21/28
22(화)	☀	22/28

## 교과부 독서 인증체계 구축 올 대입부터 활용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독서 활동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도 입시부터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별로 '독서교육종합지원체계'를 구축, 지난 7일 시스템 감수를 마치고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은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학생생활 기록부와도 연계된다. 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201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사용될 수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에 링크된 독서 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면접을 거쳐 독서 여부를 가능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1항목으로 '독서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연협뉴스

**승촌시리 농도**

메도라도리조트

**시니어스** 개인연금: 5월 31일부터 (최신형 권리서비스)

10,000원 (주회) / 10,000원 (주회) (월회료 10,000원) (월회료 10,000원)

15,000원 (주회) / 15,000원 (주회) (월회료 10,000원) (월회료 10,000원)

**장속바다장어**

장속바다장어

062-383-1110

**건물의 수명까지 Up** 합니다

IPALC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www.ipalco.com

511-0444, 010-5603-0405